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DVD) 플레이어 개발 (주)금성사

금성사가 비디오CD용량의 4배에 이르는 4배 밀도 디지털 비디오디스크(DVD)를 작동시키는 DVD플레이어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자체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사의 영상미디어연구소는 '93년 1월부터 40여명의 전담연구원(개발팀장 염성현 실장)과 모두 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 국제규격의 동화상압축 방식인 MPEG2를 채택하여 일반 비디오 CD의 4배에 이르는 데이터를 기록, 재생할 수 있고 레이저디스크(LD) 수준의 고품질을 재현하는 4배 밀도 DVD플레이어를 독자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세계적으로 일본 산요가 지난 9월, 히타치가 지난 11월말 개발한 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된 것이다.

4배 밀도 DVD플레이어 비디오 CD와 크기가 동일한 지름 12cm의 디스크에 비디오 CD에 담겨져 있는 영상과 음성정보량을 4배로 늘린 3.3기가 바이트를 기록함으로써 최대 135분의 동화상을 재생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영상 기기이다. 이로써 CD 1장으로 영화1편을 감상할 수 있고 레이저디스크 수준의 영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고밀도 디스크에 담겨진 디지털 영상신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일반 비디오 CD 픽업장치에 사용된 레이저광보다 짧은 파장의 레이저광을 사용한 고밀도 픽업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금성사가 자체 개발하여 적용한 것이다.

Giga DRAM 반도체 노광기술 공동개발 금성일렉트론(주)



금성일렉트론이 95년부터 2003년까지 총400억원을 투입할 이번 X선 노광 기술개발 사업은 차세대 반도체인 4기가 D램의 회로선 폭인 0.12μm급의 미세 회로 기술을 확보, 초미세 반도체 개발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성과 포항공대는 1차로 방사광 X선 노광의 기초기술을 확보한 후 이 기술을 반도체 소자개발에 적용, 오는 2003년까지 엄지손톱 크기의 칩에 신문지 3002천매분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4기가 D램시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노광 기술은 미세회로를 웨이퍼에 형성하는 기술로 그동안 자외선 등을 사용해 왔으나 기가급 반도체에서는 회로선 폭이 기존의 64MD램의 0.35μm에서 1기가의 경우 0.18μm에서 1기가의 경우 0.18μm, 4기가는 0.12μm까지 좁아

져 자외선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파장이 극히 짧은(10% 정도) X선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X선 노광 기술 축적이 기가급 반도체 개발의 관건으로 작용해 왔다.

멀티 스피커 사업 강화 동방음향(주)

동방음향(대표 조청동)이 멀티미디어 PC용 스피커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용 스피커 전문업체인 동방음향은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장을 겨냥, 관련 스피커 사업을 강화키로 하고 총 8억여원을 투입, 95년 3월까지 파주공장에 연면적 1,000평 규모를 증축, 멀티미디어용 방자형 스피커 8개 생산라인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증축에 따라 멀티미디어 스피커 생산량은 현재 월2만~3만조에서 내년 5~6월경 부터는 5만~6만조로 늘어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20%에서 5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반면 현재 전체 생산량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자동차용 스피커의 비중은 점차 50%대로서 멀티미디어 중심의 사업체제로 변하게 된다.

차세대 무선통신사업에 대대적인 투자 동양전자통신(주)

동양전자통신이 TRS(주파수 공용 통신)·PCS(개인 휴대 통신)시스템 개발에 나서는 등 차세대 무선 통신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동양전자통신(대표 신철순)은 TDX(국산 전전자 교환기) 중심의 사업구조를 빠른 시일 안에 무선 통신 사업 위주로 개편키로 내부 방침을 결정, TRS·PCS 등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서고 있다.

동사가 이처럼 무선통신사업에 투자를 집중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전전자 교환기 분야의 국내외 시장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용 이동통신 분야가 정보통신산업의 유망업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양전자통신은 우선 95년초를 기점으로 국내에 사설망용 TRS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TRS전문업체인 네덜란드의 로힐사 지분 50%를 약 500만 달러에 인수해 이달 중순부터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영상미디어 부문 집중 투자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는 영상미디어 부문에 향후 10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 이 분야를 독립적으로 세계적인 종합 영상정보 서비스 회사로 육성키로 했다.

대우재단 빌딩에서 영화전문 케이블 채널인 DCN(대우 시네마 네트워크) 방송국 준공식을 갖고 21세기 영상사업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동사는 향후 2015년까지 4단계로 나눠 영화 홈비디오 CD타이틀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전자출판물 위성방송을 활용한 정보서비스 등 종합 미디어 사업을 포괄하는 세계 10위권의 종합 영상정보 서비스회사가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04년까지 향후 10년동안 모두 1조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97년까지는 국내 1위의 영상 소프트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연평균 900억원을 투자, 영화제작 외화배급 위성방송 사업 참여 신규 소프트사업 진출 도시형 오락문화사업 주문형 비디오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국 유력사와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중이다.

2단계로는 2002년까지 영상사업의 고도화 추진을 목표로 연평균 1천 500억원을 투입, 케이블 TV를 활용한 멀티미디어 비즈니스 사업을 추진하고 원격제어 영화관 영화음반 사업의 국제화 등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자 출판사업 위성방송사업 고도화 등 종합 미디어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단계로는 2007년까지 연평균 2,500억원을 들여 영상사업의 국제화를 위해 조직의 국제화,

해외사업 거점확보 등 글로벌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며 해외영상사업자와 제휴, 제3국 진출추진과 국내창작물의 해외판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단계로 2015년까지 사업조직의 재구성 과 사업구도를 정착, 세계 10위의 영상정보서비스사로 부상한다는게 목표이다.

정보통신부문 전제품 ISO 9001 획득 대우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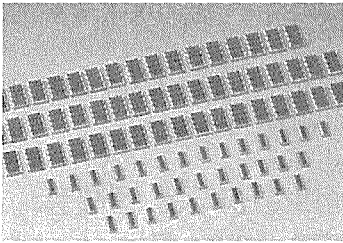
대우통신(대표 : 박성규)이 영국의 SGS 야슬리(Yarsley)로부터 정보통신 전부문에 대해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대우통신은 지난해 PC 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한데 이어 정보통신 부분에서도 인증서를 받음에 따라 교환기, 디지털 전송장치, 광가입자 장치, 각종 전송로 감시제어 장치 등 정보통신 부문의 생산제품 모두가 국제적인 품질을 인정 받게됐다고 밝혔다.

대우통신은 이번 정보통신 부문의 ISO 9001인증 획득을 계기로 전략품목인 전전자교환기 등의 해외시장 수출 추진이 밝을 것으로 전망,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이다.

복합 칩저항기 국산화 삼성전기(주)



삼성전기(대표 : 이형도)가 개발한 복합칩 저항기는 최근들어 기존 칩 저항기의 대체품으로 가격도 기존제품보다 30%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그동안 VCR·컴퓨터·통신기기의 회로내에서 전류를 제한하고 전압강하의 기능을 갖는 칩저항기는 3216(3.2×1.6mm), 2012, 1608, 1005 등으로 규격이 작아 수작업에 의한 생산이 불가능해 칩마운터로 하나씩 자동조립해 줌으로써 생산성·밀집도, 표면실장기기의 가동률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칩저항기 2~8개를 한데 묶어 표면실장 생산성을 2~8배까지 높여 표면실장비용의 절감은 물론 PCB면적도 최소화할 수 있어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기는 크기가 다른 9개 모델을 95년 3월부터 월 1,000만개씩 양산한 후 연말까지는 5,000만개 규모로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와함께 핵심소재인 알루미늄이나기판도 개발을 추진, 늦어도

96년초까지 상품화할 계획이다.

8M 싱크로너스 램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는 최근 멀티미디어기와 HDTV(고선명 TV) 등에서 고속 화상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8M 싱크로너스(동기식) 그래픽 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반도체 칩은 화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디오 메모리의 일종으로 고속 처리기능을 부가, 현존하는 비디오 처리 반도체중 가장 빠른 12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로 처리하는 최첨단 제품이다.

이 반도체는 0.45미크론 회로선폭에 3.3V의 저전압 회로를 채용했으며 화면의 비디오에서 바뀌는 부분만을 인식, 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어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그래픽 처리 기능인 블록 쓰기가 가능해 기존의 D램에 비해 8배나 많은 정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 제품의 개발에 사용된 싱크로너스(동기식)기술은 중앙처리장치의 주파수에 맞추어 메모리도 똑같이 동작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메모리 처리시 중앙처리장치에 비해 저속인데 따른 병목현상을 없애 정보 처리 속도를 대폭 향상시킨 핵심기술이다.

CD-I FMV 캡션 기술 개발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 김광호)가 CD-I FMV(완전동화상 대화형 콤팩트디스크)의 영어 한글 캡션 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에따라 CD-I FMV를 통해 영화나 교육용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영어자막과 한글자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청각 장애자들의 첨단 멀티미디어기 이용뿐 아니라 어학공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발된 캡션기술은 캡션기능을 디스크에 소프트웨어로 처리, 어떤 종류의 CD-I플레이어에서도 캡션의 재생이 가능토록 호환성을 높였고 캡션기능을 한글 영문의 자소(폰트) 데이터와 자막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단순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영어와 한글 이외에 일본어와 한자표시방법도 개발했으며 95년 부터 영어 한글이 탑재된 「캡션 CD-I FMV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한국형 GIS 개발 추진 쌍용컴퓨터(주)

쌍용컴퓨터(대표 : 장근호)가 영국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업체와 제휴, 한국형 GIS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쌍용컴퓨터는 지난달 영국의 레이저스캔사와 GIS핵심기술 이전(소스코드 포함) 계약을 마친 가운데 95년 6월까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범용 GIS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하게 될 한국형 GIS는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OODB) 구조를 지니며 기존외산 패키지형 GIS와 달리 국내환경과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수정·보강이 가능토록 설계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쌍용의 한국형 GIS 관련 투자액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자사 엔지니어의 영국 현지 기술연수 등을 포함, 총 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쌍용은 새로이 개발하게 될 GIS프로그램에 국내의 각종 산업 표준안을 채택, 타이컴 등 국산 하드웨어에서의 운용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단순한 수치지도 제작에 덧붙여 공공시설물 관리 및 지리정보 분석을 기초로한 의사결정 지원 등 사용자 활용 목적에 따른 폭넓은 응용기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쌍용은 기존에 개발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 등의 각종 GIS용 애플리케이션을 새로이 개발되는 GIS프로그램에서 운용되도록 프로그램 변환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SAC 레벨 1 수상 아남산업(주)

아남산업(대표 : 황인길)은 최근 미에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반도체 조립협의회(SAC)에서 세계 최초로 전공장의 모든 제품에 대해 「SAC레벨 1」을 수상했다.

SAC는 원자재·공정·고객만족관리체계 뿐아니라 품질정책·신제품 개발 관리체계·통계적 관리의 개념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향목에 대해 SAC협의체에서 선정한 감사팀의 엄정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를 선정,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SAC레벨 1/2/3」의 3등급을 수여한다.

지금까지 최고상인 「SAC레벨 1」을 수상한 패키지에 대해 수상한 아남산업이 유일하다.

초소형 미니 컴포넌트 개발 (주)인켈

인켈(대표 : 최석한)은 폭이 180mm이고 높이가 305mm에 불과한 마이크로미니 컴포넌트(모델명 : 펌코 123R)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고 밝혔다.

풀 리모컨 시스템을 채용하고 정격출력이 채널당 25W인 이 제품은 돌비 B회로를 내장하고 서라운드 기능, 이퀄라이저 기능, 싱글데크로서의 오토리버스 기능 등을 부여했으며 마이크 및 헤드폰 단자를 갖췄다.

인켈은 신세대 취향을 고려, 세련된 디자인에 개발 초점을 맞춘 검정과 분홍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상상의 신제품이 신세대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드 프레임 사업 참여 (주)우영

우영(대표 : 박기점)이 리드프레임 사업에 참여한다.

코넥터 전문생산업체인 우영은 그동안 일와코사·마르코사 등에서 수입해 온 LCD 및 하이브리드 IC(HIC)용 리드프레임 생산에 참여키 위해 최근 서울 창동공장에 월 1억 5,000만 원의 생산능력을 갖춘 리드프레임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5억원을 들여 일본·스위스 등으로 부터 권선기 및 머시닝센터 등 초정밀 절삭기와 금형설비 등을 도입하는 한편 리드 프레임 사업부를 신설, 전문 영업인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

우영은 LCD 및 HIC용 제품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LED와 수동소자용 리드 프레임도 생산한다는 방침아래 프레스 설비 및 도금라인이 연계돼 있는 동사 오산 제2공장에 리드 프레임 생산 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무선 키보드 본격 판매 (주)옥소리

(주)옥소리(대표 : 김범훈)가 PC를 무선으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무선키보드(모델명 김볼키드)를 개발, 판매에 본격 나섰다 고 발표했다.

옥소리가 선보인 이 제품은 무선수신기, 무선키페드, 무선키보드 등 3개의 도구로 구성되어 있고 적외선을 이용, 원거리에서도 PC를 작동시킬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제품은 특히 적외선 신호처리 방식을 채택,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최대 1,260bps 정도의 정보전달속도를 발휘, 분당 600자를 기록할 수 있다.

옥소리는 또 키페드만으로도 PC의 거의 모든 명령을 제어할 수 있으며 마우스 기능을 하는 트랙볼과 조이스틱 기능을 하는 커서키페드가 하나의 무선 키페드에 부착되어 조작이 편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통신기기 사업강화 중앙전자공업(주)

중앙전자공업(대표 변조덕)이 21세기 정보통신업체로 부상한다는 전략 아래 화상 통신기기 개발 및 수출확대에 경영력을 모으고 있다.

가정자동화(HA)기기 전문업체인 중앙전자공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 경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전자공업은 5개년 기술개발계획을 수립, 현재 HA기기의 일반 형태인 구내 유선통신 방식을 구내 무선통신망으로 전환하는 한편 화상기능을 내장한 전화기 개발에 착수했다.

또 최근 차세대 전자산업의 주

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사업에 진출키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전자는 전체 매출액의 R&D 비용을 현재 5%에서 10%로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중앙전자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현지법인을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엔진 컨트롤러용 코넥터 개발 한국단자공업(주)

한국단자공업(대표 이창원)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자동차 엔진컨트롤 유닛(ECU)용 코넥터를 국산화,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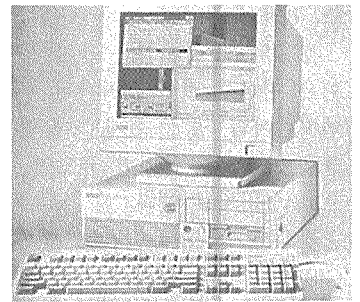
이 회사가 최근 개발한 ECU코넥터는 엔진컨트롤 유닛의 마이컴과 각 제어장치들을 연결시켜 주는 이중 잠금구조의 55핀 타입 다핀 코넥터로 진동에 대한 내구성과 접촉성이 뛰어난게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은 배기가스 자가진단에 필수적인 제품이어서 배기가스 규제가 엄격한 대미주지역 수출차종에는 전량 채용되는 핵심 코넥터이다.

동사는 이번 5밀리피치의 55핀 제품 생산에 이어 95년초에 88핀 제품을 개발, 현대 엘란트라 후속 모델인 J-2카에 전량 공급할 방침인데 그동안 독보쉬와 일 미쓰비시사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온 ECU코넥터의 국산화로 연간 45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용 펜티엄 PC 발표 한국디지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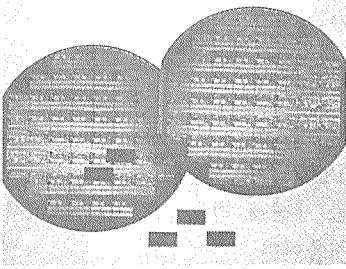
한국디지털은 전문가용 펜티엄 PC인 「셀레브리스(Celebris)시리즈를 발표했다.

「셀레브리스 560」과 「셀레브리스 FP 590」 등 2개 모델로 출시되는 셀레브리스 시리즈는 본체를 조립·분해할 때 드라이버 등 공구가 필요없도록 설계됐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게팅스타드」 프로그램과 플러그 앤드 플레이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환경보호 지침인 EPA기준을 따르고 있어 절전기능과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샷시잠금 장치, 키보드 암호기능, 디스켓 통제장치, HDD 통제장치, 다단계 비밀번호 등 뛰어난 보안성을 제공해 준다.

한국디지털은 이 제품에 대해 3년의 품질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16 MDRAM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가 고속 메모리 반도체인 16메가 D램을 자체기술로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21일 현대전자는 자체기술로 16메가 싱크로너스 D램의 상업용

샘플을 개발완료하고 출하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현대전자가 개발한 16메가 싱크로너스 D램의 작동속도는 6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로 일본의 NEC사 제품(8나노초) 보다 뛰어나고 고속 입출력 인터페이스를 채용할 때 1초에 한글 1억6,500만자를 전송처리 할 수 있는 초당 330메가 바이트급으로 세계 최고속 제품이다.

또 칩안에 2개의 독립적인 D램 반도체를 삽입해 예비 충전 시간을 없애고 처리시간을 단축해 고속 효과를 2배로 낼 수 있는 듀얼뱅크 구조로 돼 있다.

현대전자는 내년부터 본격 양

산을 개시할 계획인데 제품개발 과정에서 20여건의 기술을 국내외에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싱크로너스 D램은 펜티엄과 같은 고속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멀티미디어용 칩과 병행해 사용하는 고속 메모리 반도체로 금년초 국제 전자제품 표준화위원회(JEDEC)에서 표준안이 통과된 이후 세계 반도체업계가 경쟁적으로 개발해온 고부가 첨단제품이다.

시장규모도 멀티미디어와 펜티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내년부터 사용이 급증, 96년에는 전체 16메가 D램시장의 약 20%, 97년에는 30% 정도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단 압 산 업 (주)	'85. 1. 1
대 성 정 공 (주)	'90. 1. 1
능 한 전 자 (주)	'83. 1. 1
(주) 신 성 기 업	'87. 1. 1
영 화 웨 라 이 트 (주)	'90. 1. 1
금 성 사	'59. 1. 3
신 성 전 자 공 업 (주)	'90. 1. 4
영 진 상 역 (주)	'79. 1. 4
한 국 전 자	'84. 1. 4
금 성 정보 통신 (주)	'76. 1. 5
금 성 기 전 (주)	'71. 1. 5
금 성 전 선 (주)	'62. 1. 5
(주) 보 성 화 립	'79. 1. 6
문 화 통 신 공 업 (주)	'74. 1. 7
(주) 상 운	'85. 1. 7
한 국 강 업 (주)	'79. 1. 8
해 양 전 자 장 비 (주)	'73. 1. 9
(주) 다 우 기 술	'86. 1. 9
금 산 전 자	'86. 1. 10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월 성 전 자 공 업 사	'69. 1. 10
코 리 언 일 레 트 로 닉 파 위 소 스	'85. 1. 11
(주) 마 이 텍 전 자	'93. 1. 12
(주) 삼 정 정 기	'79. 1. 12
(주) 영 원 통 신	'84. 1. 12
대 덕 산 업 (주)	'65. 1. 12
(주) 점 보 실 업	'67. 1. 15
(주) 공 병 우 통 신	'88. 1. 15
(주) 에 어 로 시 스템	'86. 1. 15
락 토 전 자 (주)	'89. 1. 17
신 아 기 업 (주)	'84. 1. 17
대 진 전 자 공 업 (주)	'89. 1. 18
(주) 태 평 양 금 속	'77. 1. 18
코 오 롱 전 자 (주)	'71. 1. 20
합 동 전 자 시 스템 (주)	'71. 1. 20
세 일 정보 통신 (주)	'92. 1. 23
신 성 전 자 상 사 (주)	'77. 1. 25
한 국 전 자 부 품 공 업 (주)	'73. 1. 26
동 방 전 자 산 업 (주)	'66. 1. 27